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샌 안토니오
파견대학	University of the Incarnateword	파견기간	2017.08~2018.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샌안토니오는 텍사스에서도 남부에 위치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햇살은 강하지만 습기가 없어 바람은 시원해요. 멕시코에 인접해서 멕시코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p> <p>학교 위치는 샌 안토니오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요! 학교 바로 옆에 HEB 마트가 있고, 우버로 10분 정도 가면 한인마트와 한인 식당도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새로 지은 학관 학식이 맛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은 스테이크와 랍스타도 나옵니다. Meal plan에 있는 Dining Dallar 로 계산해요.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이 많은 걸 시도하고 계세요.</p>

2017-2학기 수업	<p>Human Resource 인적자원 교재와 피피티 위주로 수업하세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중간 기말도 객관식입니다. 정장을 입고 발표하는걸 선호하십니다.</p> <p>Principal of Marketing 마케팅원론 이 분도 교재와 피피티 위주로 수업하세요. 중간 기말은 객관식입니다.</p> <p>Singing for beginners 가볍게 들으려 신청한 교양인데... 한 학기의 초반 절반은 목과 성대의 해부구조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해부에 대한 시험도 보고요. 후반부에서 본격적인 발성과 감정표현 자신감 등을 배웁니다.</p> <p>Class Piano 정말 강력 추천하는 교양입니다!! 개인 피아노로 악보 보는 법 아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도 피아노 학원 한 번도 가보지 못 한 학생인데 학기말엔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를 연주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1</p> <p>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 챕터별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평소 호기심 있는 분야를 딱 교양 수준으로 가르쳐주십니다.</p> <p>Anthropology 성, 문화, 인종 등에 대해 배웁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매우 흥미로워요. 시험은 단답 주관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두 세 번 정도의 수업관련 기사 찾아 요약 및 감상을 제출하는 레포트 과제가 있습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International students를 관리해주는 부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일 이주간은 국제학생들 대상으로 심카드 만들기, 보험, 생필품 구매 등 미국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도와줍니다. 국제학생들을 위한 파티와 여행도 있구요. 이 기간에 친해진 친구들과 주로 같이 어울리게 돼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햇빛이 많이 강하지만 실내는 에어컨이 굉장히 썰서 매우 추워요. 또 날이 덥다가도 비가 오면 꽤 쌀쌀해집니다. 얇은 가디건과 후드티 점퍼 정도는 챙겨오시길 권해요.
안전	교내는 캠퍼스 폴리스가 관리해서 안전해요. 하지만 다운타운의 경우 번화가를 벗어나면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꼭 친구들과 같이 다니시고 번화가를 벗어나지 마세요. 절대 밤에 다니지 마시고요.

<p>숙소</p>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첫 학기는 2인 1실 총 4명이 생활하는 Avoca 에 머물렀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있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주방은 가스레인지와 오븐이 있어 요리를 직접 해드시는 분이라면 편해요. 그치만 가장 중요한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어 벌레가 좀 나오고 세탁기가 야외 별도의 건물에 있다는게 가장 큰 흠입니다.</p> <p>2학기는 신식건물인 Sky view 에서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1실이었지만, 공용주방을 사용했어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만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은 깨끗하지만 냉난방이 중앙제어여서 잠 잘 때 많이 춥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p> <p>밀 플랜의 퀄리티는 좋지만, 좋은 퀄리티를 감안해도 인간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는 밀플랜 나머지는 집에서 직접 해먹었어요. 밀플랜은 학관의 메인 카페테리아에서 이용가능해요. 뷔페식입니다. 다른 건물에는 간단한 햄버거나 부리또 도시락등을 판매해요. 가끔 한인마트가서 식재료랑 한국음식 사와서 해먹는게 훨씬 쌉니다. 근처 일식집도 자주 이용했네요. 가격대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p>
<p>교통</p>	<p>버스노선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과 같이 우버를 탔습니다. 10분 정도의 거리는 나눠내면 버스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장거리를 이용한다면 우버비가 부담스럽기도해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88만원	저는 출국전에 여행일정을 정해놓지 않았어서 입출국을 따로 구매했어요.
Fees		
보험료	500불 정도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현지학교에서 필수로 가입해야했어요.
숙소	한 학기 3620불	
식비	한 밀플랜 60회. + 다이닝달러 =1320 외에 직접 식재료 사는데 쓴 돈이 월 100불 정도	의무구매입니다. 한 학기 학관에 위치한 뷔페를 60끼 사용할 수 있고, 다이닝달러는 교내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현금대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교통비	월 50불 정도	
책값	대여할 시는 평균 30불 구매하면 100불 이상	대부분은 중고책을 대여했지만, 최신판은 신권을 샀습니다.
여행비	200만원 정도	저는 따로 미국 여행을 하지 않고, 멕시코를 자주 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게 쓴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500정도까지 쓰는거 같아요.
기타2		
합계	대략 1년에 16,850,000 만 원	저는 생활비는 적게 썼지만, 기숙사비가 비중이 가장 컸어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한 뒤에 미국에 가세요. 특히 스피킹이랑 리스닝을 많이 공부해두세요. 힘든 토픽 공부 끝난 뒤에 마음껏 놀고 싶은 마음은 저도 백분이해합니다. 다만 미국에 가면 영어는 어떻게 되겠지란 생각은 위험해요. 딱 자신이 가진 그릇 크기만큼 담아갈 수 있어요. 그릇이 작으면 내가 원하지만 담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해요.
2. 어댑터는 가능한 많이 챙겨가세요! 생각보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3. 한국어로 된 책 몇 권 챙겨가세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 종이 활자로 된 한글이 정말 읽고 싶어지는 순간이 와요.
4. 친구들 선물로는 엽서가 좋은거 같아요. 요즘은 문방구나 다이소에 가면 전통 한복이나 문양으로 세겨진 예쁜 엽서들 많아요. 작은 카드지갑이나 책갈피를 챙겨온 친구도 있었고, 특별하게는 자개보석함을 가져오신 분도 있었어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교수님께 드렸답니다.
5. 미국은 필기구류가 비쌉니다. 또 사소하지만, 미국은 무지 노트가 없어요. 모두 줄노트뿐이에요. 전자제품이 비싼편입니다. 여분의 USB와 충전기를 챙기세요.
6. IPin 꼭 미리 가입하세요. 한국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혹은 아이디와 비번을 찾을 때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폰은 한국폰을 정지시킨 뒤 개통해야해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 꼭 아이핀 미리 가입하세요.
7. 한국음식 많이 챙겨오시지 않아도 돼요. 한인마트에서 공수가능합니다. 심지어 젓갈도 있어요. ㅎㅎ
8. 여성분들은 꼭!!!! 화장솜 많이 챙겨가세요. 미국 화장솜은 질이 정말 너무 안좋아요. 보푸라기도 많이 일고 까슬까슬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겪고, 배운 시간이었어요. 흔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신을 보는 시야도 달라져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살아저도 몰랐던 진짜 저를 알게 됐어요. 예상외로 저는 보라색 립스틱도 잘 어울리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선호하더라구요. 예전에는 튀어보이기 싫어서, 평범이란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매를 감추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입을 수 있다는게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어안이 병병한 문화충격도 겪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 장점 혹은 채워야하는 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값진 교훈이 정말 많아요.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사람을 고르겠어요. 각국에서 각자의 사연과 꿈을 가지고 모인 친구들과 울기도 웃기도 했어요. 같이 클럽에 가보기도 하고 시험기간엔 밤새 도서관에 있어보고 자국의 언어와 요리를 소개해주고. 올 여름엔 대만친구와 미국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부족한 제 영어실력을 배려해주신 교수님들, 항상 즐겁게 맞아주시는 교직원분들 덕에 즐거운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전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타지에 살면 꼭 반드시 외로운 기간이 찾아와요. 대부분은 "왜 내 영어는 안 느는거지?" "부모님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니" "한국에서 대외활동이란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보다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고민들 일거예요.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고 혹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교환학생을 선택하기에 많은 기대감과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부디 자책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거예요. 잘 해내지 못해도 뭐 어때요. 그 경험에서 오는 교훈으로 다음에 참고하면 되죠. 미국에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도 슬픈 시간도 모두 다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야자수가 이국적인 텍사스</p>	<p>음악학부 학생들의 뮤지컬공연</p>
	
<p>수퍼스 농구팀 홈경기</p>	<p>멕시코 여행</p>
	
<p>밀플랜</p>	<p>멕시코 여행 중 새해에 만난 친구들</p>